

충남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국서 우뚝

-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당진 신평면 우수상, 보령 남포 장려상



충남도의 주민자치 우수사례가 전국에서 인정 받았다.

도는 10월 29일 부산에서 열린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당진시 신평면이 우수상을, 보령시 남포면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생활자치의 물결, 국민행복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는 주민자치 센터활성화 지역활성화 평생학습 등 4개 분야에 걸쳐 전국 81개 기초단체에서 340팀이 참가했으며, 64팀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치러진 본선 결과 당진시 신평면이 주민자치 분야 우수상(부산광역시장상)을, 보령시 남

포면이 평생학습 분야 장려상(열린사회시민연합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당진시 신평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마을대표위원과 지역공모위원을 분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방식과 절차를 체계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면 단위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유급간사를 고용해 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봉사활동 및 주민화합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호평을 받았다.

또 비행청소년의 진로체험이라는 분명한 모티브 속에서 '조나단이랑 떠나는 토요일'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도 우수상 수상에 한몫했다.

보령시 남포면은 '서각'이라는 문화예술을 주민자치센터 전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낸 점이 부각됐다.

특히 '서각교실'을 주민 일부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확대해 서각예술제라는 문화예술제를 개최해 문화마을로서의 위상을 높인 점과 수강생의 작품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

이 평가됐다.

한편, 당진시 신평면은 지난 20일 도가 개최한 '제1회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에서 최우수상(도지사상)을 수상하며 도내 대회에서도 주민자치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청년 일자리창출 위해 지역축제에 할당제 도입

- 도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지역축제 청년 10% 할당' 협약



충남도가 청년들의 지역 축제 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안희정 지사는 10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김영만 서울신문 대표이사,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 대표축제 청년 10% 할당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각 광역단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대표축제 청년 10% 할당제를 도입·확산하고, 청년 문화예술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도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축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 방안 모색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실현 기반 마련 △지역 축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소식

이와 함께 도는 이번 협약을 도내 청년정책 추진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성과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충남형 청년정책 과제 발굴 청년계층의 도정 참여 활성화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지역 정착 지원 등 3대 전략 7개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는 또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년정책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 강화 등 정책제안도 병행 추진한다.

현행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일자리 예산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주거·복지 등 청년정책의 다양화와 청년공동체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이 유입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안희정 지사는 “이번 협약은 실업해소는 물론,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충남도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협약 참여 의의를 밝혔다.

이어 안 지사는 “앞으로 도내 각 시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지역 축제에 청년 참여율을 높여 지역축제 활성화와 충남도의 청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희정 지사는 10월 27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지역 대표축제 청년 10% 할당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안 곰섬공동체 자율관리어업 '전국 1위'

- 어업공동체 평가에서 '대통령상' ... 전국 1129곳 중 최고 점수



충남도 수산관리소는 태안군 남면 신온3리 곰섬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10월 27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열린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곰섬은 해양수산부의 올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에서 전국 1129곳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1위인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곰섬은 주민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해삼 전용 인공어초를 투입해 자

연 산란장을 조성, 부자마을을 꿈꾸고 있는 공동체다.

도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곰섬에 2억 4000여 만 원을 지원, 해삼 양식장 투석과 종묘 방류를 지원했다.

곰섬은 또 지난해 투입한 인공어초 1000곳에 해삼 종묘 7만 5000마리를 입식하는 '해삼 종묘 육성 양식 시범 사업'을 도 수산관리소와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해삼 자연 산란장 시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는 60톤에 달하는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고, 지난 2012년에는 개조 개 시범양식으로 종묘 5만 마리를 방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로 전국 최우수 공동체에 선정된 곰섬은 부상으로 내년 2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곰섬은 이 지원금으로 바지락 해감장 조성 및 바지락 판매 스마트폰 어플 개발, 전국 직거래 판매망 구축, 해삼전용 인공어초 투입을 통한 자연 산란장 조성을 추진하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야생 해삼 견학코스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수산관리소 관계자는 “곰섬은 초기 경험 부족으로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어 왔으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전국 최고로 올라서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곰섬이 더욱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는 도내 운정내수면공동체(위원장 공정열)·안면도 밧개공동체(위원장 방봉남)가 해수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만수동공동체(위원장 전제능)가 국립수산물학원장 표창을, 대야도공동체(위원장 문윤모)가 수협중앙회장상을 각각 받았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도내 안면도 대야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전국 2위 우수 공동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